

# 365일 한줄 고전으로 인생의 변화를 찾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일상에서 대하는 사람들, 오고 가는 감정, 마주치는 다양한 욕망 속에서 날마다 소모되는 자신을 발견한다. 또 내 의지 밖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과 위험도 종종 마주한다. 이렇게 소모되는 일상을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지나 보내며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자신을 잃는다. ‘내가 잘살고 있는 건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왜 항상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가?’ 멈추지 않는 인생의 질문들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또 하루를 떠나보낸다.

고전연구가 조운제 ‘하루 한 장 고전 수업’ 출간  
매일 한 가지 주제로 만나는 옛 성현들의 지혜

자신을 돌아보고 돌볼 시간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줄의 고전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찾게 하기 위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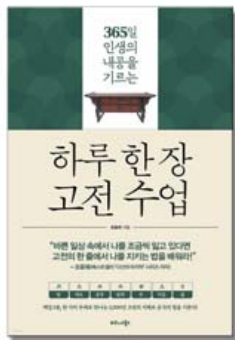
30만 독자가 열광한 ‘다산의 마지막’ 시리즈 저자이자 고전연구가 조운제 작가가 ‘하루 한 장 고전 수업’ (비즈니스북스)을 펴냈다.

이 책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고전의 지혜를 통해 좋은 생각을 마음에 채우기를 권한다. 그리고 이런 지혜에서 비롯된 좋은 생각으로 나와 내 삶에 대해 더욱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은 수십 권의 고전에서 건져 올린 매일 습관처럼 읽어야 하는 고전 명문장 365개를 담았다.

‘논어’, ‘명심보감’, ‘도덕경’, ‘채근담’ 등 불안을 다스리고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평생 곁에 두고 읽어야 할 문장들을 엄선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삶의 기본이자 진



@아이클릭아트 이미지

리로 채워진 고전에서 한 줄의 문장을 뽑고, 단 한 장에 저자의 해설과 통찰을 담았다.

1년 365일 매일 5분, 하루에 한 장씩 읽기에 쉽고 편하도록 주제를 정해 한 주의 시작과 끝에 읽으면 더욱 공감되고 마음 깊이 와닿는 문장들을 전한다.

요일별로 ▲말(言) 말이 곧 나 자신이다 ▲태도(態度) 나를 바로 세운다 ▲공부(學) 일상에 감하지 않고 매일 새로워진다 ▲관계(關係) 일도 사람도 얻는 법을 깨닫는다 ▲부(金) 부의 그릇을 키운다 ▲마음(心) 쌓인 마음의 독을 해소하다 ▲심(休) 삶에 평안함을 가져오는 지혜를 쌓는다 등 7개의 주제를 정해 매일 5분, 한 줄의

고전에 담긴 2천년 공극의 지혜로 인생의 내공을 기르도록 돕는다.

7가지 주제마다 담긴 한 줄의 고전과 저자의 메시지는 짧고 강렬하며 깊은 울림을 준다.

주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전은 삶의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준다. 단순히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저자는 “한 줄의 고전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다면 남다른 하루를 살아가 수 있을 것이다”며 “이 책은 인생의 성장과 궁극적인 변화를 바라는 독자들에게 짧지만 깊이 있고 강렬한 고전의 통찰과 지혜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 새로 나온 책



▲오래된 학교=안정선 글·그림  
코로나 팬데믹은 그 무엇보다 학교의 본질에 대해, 수업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했고 교사들이 자기 수업을 성찰하게 했다. 이 책은 지금 이 사회에 왜 학교가 필요한지를,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남중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하는 중학교 교사의 에세이다. 교육을 둘러싼 모든 주제가 들어 다뵈어 할 코로나 시대 교육 단상, 무지개보다 다채로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할 실마리, 요즘 중딩이 부딪히고 마주하는 시간들, 남중 교사의 고민거리와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고픈 이야기를 풀어 썼다. /내일어는책·1만5천원



▲푸른 독을 품는 시간=유종 저자  
끊임없는 자신의 삶과 시대의 문제들에 대한 질문. 유종 시인의 첫 시집 ‘푸른 독을 품는 시간’이 출간됐다. 시집은 4부로 구성, 57편을 담았다. 제1부에서는 시인의 생활 속에서의 정서가 담긴 시들을, 제2부에서는 오랫동안 철도 노동자로 살아오는 과정의 체험들이, 제3부에서는 현실에 대한 시적 사유들을 담고, 제4부에서는 현실에 대한 자신의 삶으로서의 응전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자신의 내면과의 근원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시편들로 채웠다. /도서출판비·1만2천원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 마라=미하엘 슈미트잘로론 저자, 김현정 옮김  
인류에게 천재지변이 아닌 전쟁과 참사는 왜 계속되는가. 지도자와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지배적인 어리석음은 곧 지배자의 어리석음이며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책의 저자인 미하엘 슈미트 살로몬은 독일 철학박사이자 저술가로, 독일에서 지배적 통념에 아랑곳없이 소신껏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냉철한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 마라’에서도 현대사회의 비정치적 패러다임을 맹렬히 지적하고 ‘인간은 이성적이고 현명하며 합리적’이라는 인식에 ‘과연 그러한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고조원·1만7천원



▲마스크 요정과 꼬마꽃별=정범중 글, 김재희 그림  
생태적 감수성과 관계를 확장하고 집단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동화 ‘마스크 요정과 꼬마꽃별’이 발간됐다. 등교수업이 어려워지고 친구들과도 자유롭게 만나는 게 금지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아파트 화단의 빈터에 봉숭아 씨앗을 심고 꽃으로 자라나도록 돌보고 거기 깃든 꼬마꽃별을 지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아이의 모습을 그렸다. 팬데믹이 삶을 위압하도록, 어른의 권위와 고정된 관습이 자신의 노력과 소망을 허물도록 지켜만 보는 아이가 아니라, 강단 있게 자기 삶을 돌보고 목소리를 내는 아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봉숭아꽃도, 꼬마꽃별도, 길고양이도, 그 너머 자연의 존재들 모두 놀라운 힘과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문학동네·1만1천원

## 시적 이미지로 담아낸 일상의 소중함

김봉숙 시인 첫 디카시집

‘갯마을 오후’ 출간

바다·들판 등 155편 사진·시 담겨

김봉숙(사진) 시인의 첫 디카시집 ‘갯마을 오후’가 출간됐다.

이번 시집은 제1장 ‘갯마을 오후’는 여객선에, 제2장 ‘빛나는 너의 배경이 되어 줄게’, 제3장 ‘설렘의 순간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됐다. 시집에는 김 시인이 직접 촬영한 155편의 사진과 시가 함께 담겨있다.

시인은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사물에 시선을 집중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들의 외침을 시적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그가 산에 오르면 풀과 나무가 말을 걸어왔고, 또 어떤 날은 강둑에 홀로 앉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되기도 했다.



시인은 강과 산, 바다와 들꽃 그리고 가까이 보이는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언어를 아름다운 사진과 글로 받으면서 불면의 시간을 창작으로 탈바꿈시키고, 이들의 몸짓을 그리움으로 엮었다. 그렇게 한 편 한 편의 디카시가 완성됐다.

시집에 실린 155편의 시들은 매우 독특하고 개성이 있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담고 있다.

삶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와 다채로운 시선으로 해석하고 이를 시적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시와 사진을 아우르는 제목 또한 디카시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초점이 잘 맞아 깔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구도의 사진을 통해 곳곳에 널려 있는 발견의 재미와 새로움을 제공한다.

박덕은 문학평론가는 평설을 통해 “김 시인의 디카시집 속 시적 형상화된 시는 사진 속의 오묘한 세계를 보듬어주고 이를 더욱 빛나게 해준다. 시와 사진이 만나 예술미를 풍기고, 보는 이의 가



김봉숙 디카시집 ‘갯마을 오후’ 중 ‘꽃편지’ 삽화.

슴을 뿌듯하게 해준다면 디카시의 임무는 무사히 마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제2, 제3의 디카시집 또는 시집을 발간해 여성 동안 시와 함께하고 사진과 함께하는 멋진 삶이 지속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봉숙 시인은 문예사조 시 신인문학상, 문학공간 디카시 문학상 대상 등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오은문학 디카시 문학상 대상, 현대시문학 상행시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동그런문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시낭송가, 스피치 지도사, 광주문인협회 회원, 광주시인협회 회원, 한실문에 창작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에 재직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남자들은 다 아는 바로 그 제품

New  
**씨알-렉스**

남자한테~ 표현하기가~  
어제와 다른 오늘의 활력을 느껴보세요!  
나를 위한 좋은 습관, 씨알-렉스

드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역시! 씨알-렉스!!  
효능·효과는 묻지마세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개월분(60포) : 198,000원→148,000원

(주) 보람약품

주 문: yuhanbio@naver.com

네이버 카페 씨알렉스 검색

택배비: 농협 351-1107-2991-93 (예금주:유나온)

시·군 대리점모집

광주본사: 010-4624-5046

전북지사: 010-7704-2490